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중에서



잭 캘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기근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 갔을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갈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한 백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의 한 사진기자가 과일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 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주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땐 그랬지▶ 군대시절 계란후라이

야외로 전투훈련 나가면 가끔 동네에 들어가 계란을 얻어다 계란후라이를 해 먹었습니다.
 후라이팬이 없어도 안되는 것을 되게하는 군인 정신! 야전 삼에 계란을 깨어 넣고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면 즉석 계란후라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고참이나 되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되는 것이 없었던 그때의 군인정신, 지금도 건빵을 먹을 때 마다 그때의 정신이 되살아납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4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1월 28일
☎369-5077/525-3858 .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김영수



주님!
 제가 낳은 아이들이
 도무지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마음을 채워 주기를
 얼마나 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의 밝은 등대이기를
 저의 끝없는 노래이기를
 저의 크나큰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그들은 저를 채워 주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들 아닌
 제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제 욕심의 빛깔대로
 그들을 마구 덧칠하려는 짓을 그만두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그들대로의 그윽한 빛깔
 산뜻한 숨결이 숨어 있음을 알아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어린 싹을 보고 꽃을 피우지 않는다며
 또는 새가 아님을 알면서도 날지 못한다며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이들이 아직은 꽃피지 않아도
 머지 않아 나뭇의 향기를 드러낼 것이고
 아직은 날지 못해도
 언젠가는 나뭇의 하늘에 밝게 달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서로가 감당하지 못할 기대로써
 함께 참담히 무너지고 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마련하신
 그들의 빛깔대로
 평화로이 바라보는 기쁨을
 저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소서.

◀딸아! 이런 남자친구와는 사귀지 마라(3)▶

남자 친구가 너와 함께 어딘가를 운전하며 갈 때 길을 많이 헤맨다면 싹이 노란 녀석이다. 떠나기전 미리 지도를 보거나 물어서 길을 숙지했어야 한다.
 '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는 애들은 커서 인생도 그 모양으로 지레짐작으로 살아 가게 됨을 기억하거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8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5 (강림절 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찬 송 Hymn	168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지찬영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1-1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예수님의 문중"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98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12월의 예배위원◆

◆11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28	지찬영	김경천	2구역	5	대림절(2)
5	최재학	김삼영	3구역	12	대림절(3)
12	김교섭	김선영	4구역	19	대림절(4)
19	김영길	김심홍	5구역		은십자가(구역장, 인도자, 담당권사)
26	김순자	김인희	6구역		성탄축하의밤(24)
				26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31)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이사> 박기원, 박기해 성도 ☎ 638-9000 ☒ 25 Domett Ave. Epsom
-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 봉헌주일입니다.(매달 마지막 주일)
*한 달을 준비하며 모은 Silver Coin이 가득해지면 큰 단위 Coin은 도로 집어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Coin이 내게도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데 어려운 어린이 들에게는 얼마나 큰 Silver Coin 인지를 부끄러움으로 깨달습니다 (태국.필리핀 그리고 고국의 아동 4명)
- 선교회 총회
*새학년이 된다고 들떠있던, 이제는 잊어버린 초등학교 시절의 설레임은 지금 생각 해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그런 마음으로 기대 한다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연장자 순으로 임원선출이 되지만 마음만은 새학년을 기다리는 마음이기를...
- 2005년 자원봉사 자원서를 기다립니다
*주방.화장실청소.주차안내.교회당청소.교사.성가대.
*교회당.화장실청소:여러분들께서 자원하여 주시면 2-3개월씩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도 그랬듯이 세례받읍시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유아세례받은 교우) 대상 교우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자격>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우. 교회출석 6개월 이상된 교우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중 대상자에게 권면하여 주십시오
- 금주 수요일예배는 "수요수도원" <저녁 7:30분>과 "밤에 드리는 새벽기도회"
*금년도 마지막 수요수도원입니다. 이번은 새벽기도회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에 못 나오는게 못내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금주는 새벽기도회의 마음으로 수요수도원을 갖습니다. 수요수도원을 새벽의 마음으로 오셔서 믿음 생활, 가족, 사업, 직장, 학교등을 위해 한번 깊이 기도하십시오
*금주 "금요새벽기도회"는 갖지 않습니다

◀착한 시인들▶ 나 조동화

나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성실한 땀보다 한 번 대박의 꿈이 시류가 되버린 세상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의 차이가 없어진 우리시대에 신앙은 나 하나 바로서는 것으로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눈이 크고 단번에 성공하는 것에 쫓려 있을 때 우리는 내 몸 하나 단풍들어 자리지키다 온 산 붉게 물들이는 그런 하늘의 존재입니다.